

명작의 고향을 찾아 떠난 순례의 기록들

문인들의 숨겨진 일화 소개하는 책 많아...
역사의식과 현장성 일깨우는 책도 눈에 띄어

위대한 작가나 작품에는 간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적적인 창작배경이 따라다닌다. 작가가 살았던 공간이나 활동의 흔적은 텍스트의 뒷면에 깊은 속살을 맞댄 채 독서의 미담지로 남아있다. 문학기행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서 생겨난다. 그것은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과 현실 사이에 운명적으로 놓인 괴리, 그 공간 속을 더듬어 들어가는 신비로운 길찾기다.

작품을 읽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작품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심리상태에서 씌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작가나 작품에는 간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적적인 창작배경이 따라다닌다. 예를 들어 도스토예프스키의 많은 소설들이 작가의 구술을 받아적어 완성됐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드물다. 이런 사실 말고도 한 작품이 탄생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가로놓여 있다. 문학기행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서 생겨난다. 그것은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과 현실 사이에 운명적으로 놓인 괴리, 그 공간 속을 더듬어 들어가는 신비로운 길찾기다.

동서양 고전의 산실을 찾아서

문학기행은 때로 아슬아슬한 과거 시간으로의 모험을 강행한다. 《로마문학기행》(마리온 기벨, 박종대, 백의)이 그 예다. 서양문명의 중추인 유럽의 정신과 문화의 근원을 찾아가는 이 책은 우선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읽힌다. 독자는 호라티우스의 사비느 농장에서 '서울쥐와 시골쥐' 같은 옛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 오비디우스가 태어난 도시를 방문하고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을 추억하거나, 풍자의 대가 유베날리스가 즐겨 쓰던 해학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가 나폴리 해안가로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초대하던 음침한 음욕의 달밤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며 베수비오 화산 폭

발로 목숨을 잃은 《자연 백과 사전》의 저자 플리니우스를 만날 수도 있다. 서양 문화의 신세벽, 로마에 잠입하는 일은 그야말로 상상의 축제와도 같다.

《허세욱의 중국문학기행》(허세욱, 학교재)은 감칠맛 나는 문장과 글 사이사이에 들어간 사진과 지도로 친절하게 고대 중국문학의 세계로 안내한다. 이 책은 중국 문학의 발전 경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13년 여행담사의 기록이다. <적벽부>의 배경인 후베이성 적벽강 앞에는 현재 회색 아파트와 초라한 물웅덩이만 남았다. 중국 4대 기서 가운데 하나인 《서유기》의 발상지 장쑤성 복단 련원강은 상전벽해다. 손오공이 탄생했다는 화귀산은 현재 련원강 시 동쪽에서 15km 떨어진 윈타이산으로, 1668년 대지진 때 바다가 토사로 메워져 말 그대로 '백해'가 '상전'이 됐다.

《고전문학의 향기를 찾아서》(이지영 외, 들베개)는 고전문학의 산실을 찾아가는 문학 순례이자, 대표적인 작가들을 중심으로 읽는 고전문학사 산책이다. 균 여, 이규보, 이황, 정철, 윤선도, 정약용, 신채호 등 한문학과 국문학의 주요 작가 13인을 선정하고 그들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역사적 공간 속에서 조명함으로써 그 삶과 문학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했다. 지은이들은 표지판 하나 서 있지 않은 산길을 헤매다 겨우 찾은 허균의 묘지에서 한숨을 짓기도 한다. 이 책에 거론된 문장가들의 묘나 문학산실의 터를

약도에 꼼꼼히 침부한 것도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문인들의 익살스러운 일화들

다시 태평양을 건너 유럽대륙으로 가보자. 《바이마르 문학 기행》(노르베르트 윌러스 외, 박종대, 백의)은 괴테, 쉴러, 비일런트, 헤르더 등 당시 문인들의 교류 현황과 황금시대를 구가하던 바이마르의 예술적 풍광을 폭넓게 조명해준다. 독일 국립극장 앞에 있는 괴테와 쉴러의 청동기념비와 그들의 묘지, 1896년에 개관한 괴테·쉴러고문서보관소, 괴테 국립박물관, 괴테의 여름 전원주택, 쉴러의 생가 등이 자그마한 시골 도시 바이마르에 모두 모여 있다. 괴테와 쉴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은 괴테와 쉴러가 처음부터 단독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고 상당한 반목과 갈등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고 전한다. 특히 그들이 주고받았던 편지에서 슈타인 부인과 사랑에 빠진 괴테가 그녀와 주고받은 편지를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대문호답지 않은 순진함에 터져나오는 웃음을 멈출 수 없을 정도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대영제국에는 셰익스피어가 있다. 《셰익스피어를 만나러 가는 길》(김인성, 평민사)은 셰익스피어에서 버나드 쇼까지 영국작가들의 고향과 삶, 작품세계를 그리고 있다. 이 책에서는 작가들의 재미있는 일화가 많이 소개되는데, 버나드 쇼가 한 예다. 그가 노벨상을

받은 후 어느 잡지에서 그에게 뛰어난 작가 100인을 선정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다. 워낙 청탁과 의뢰를 사절하기로 유명한 그에게서 어느날 답장이 도착했다. 당연히 거절의 편지인 줄 알고 쇼의 답장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100인의 이름이 가득 적혀 있었다. 그런데 “1. 조지 버나드 쇼, 2. G.B.S, 3. G.B.쇼...” 같은 식의 모호한 순열이 이어지길래 잘 들여다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쇼가 자기 이름 석자를 100가지로 조합한 ‘오만한 장난’ 일 뿐이었다. 그 밖에 독일문학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데는 《독일문학기행》(오용록, 계백)이 유용하다.

한편, 《세계의 문학기행1》(김성우, 한국문원)은 세계의 위대한 시인, 작가들의 고향을 찾아나선 순례기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부터 단테, 스탕달, 괴테, 헤세, 카프카, 헤밍웨이, 푸시킨의 명작들까지 그 창작의 공간을 거닐 수 있다.

역사의식과 현장성 일깨우는 책들

문학기행은 또 역사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이다. 작품에 그려진 민족수난사의 현장을 답사하고 권력의 흥망과 애증의 긴 물줄기를 한번 가능해보는 일도 고스란히 길떠난 자의 몫이다. 《역사와 만나는 문학기행》(최재봉, 한겨레신문사)은 안도현의 시집 《서울로 가는 전봉준》(민음사)부터 양귀자의 《숨은 꽃》까지 최근 1백년간 우리 역사의 구비를 담은 작품의 산실을 찾아가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문학 저널리스트인 지은이가 작가와 직접 동행해 답사했다는 것이다. 서정주, 박완서, 최인호, 조정래, 김지하 등 1급 문인들을 총망라한 이 책은 서정주 시인의 작품기행에서 ‘가미가제’를 찬양한 그의 친일시 〈마쓰이 오장 송가〉를 소개하면서 친일문학의 실상을 다루는 한편, 당대의 대다수 문필가들이 친황을 칭송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고충도 드러냈다. 지은이는 한국문학이 “경험의 풍요와 표현의 빈곤”에 놓여있다고 평가하며, 역사적 고난과 진실이 아직 문학작품으로 형상화된 사례가 부족함을 아쉬워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우리 고난의 역사를 모두 만나볼 수는 없다. 북쪽의 역사현장이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나온 북한문학 기행서는 없다. 그나마 평양, 백두산, 칠보산, 묘향산, 금강산 등 북한 전역의 자연과 풍광을 담은 기행집 《분단 50년 북한을 가다》(한국문원 편집실, 한국문원)가 나와 있어 한탄할 너머의 사정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있다.

김 훈·박래부의 《문학기행(전2권)》(한국문원)도 문학기행서의 대열에서 빼놓을 수 없다. 소설가 박경리의 《토지(전16권)》(술)에서 최두석의 《대꽃》(문화과지성사)까지, 북으로 북한강변 샘골(전상국의 〈아베의 가족〉)에서 남으로 제주 애월바다(문충성의 〈제주 바다〉)까지 직접 밟고 돌아온 기록이다.

유난히 중앙 집중이 두드러진 한국에서는 문학 역시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대다수 문인이 서울 태생이거나 서울에서 활동했고, 작품의 무대 역시 서울인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문학기행》



작가들의 숨겨진 일화에서 작품의 배경이 됐던 공간정보까지 다채로운 내용을 담은 문학기행서들이 서점에 나와있다. 미처 몰랐던 작품의 진실을 알려주고, 직접 가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는 데 유용한 책들이다.

(장태동, 미래M&B)은 제목 그대로 서울 시내의 문학 현장을 둘러본 기행집이다. 염상섭이 죽기 전까지 살았던 성북동 집, 지금은 가정집으로 변한 한용운의 심우장, 전통찻집으로 꾸며진 소설가 이태준의 생가, 박인환이 살았던 원서동 집과, 그가 연 서점 ‘말리서사’에서 모더니즘을 수업했던 쟁쟁한 문인들의 치기어린 열정도 끄집어낸다. 각 문인들의 약력과 사진을 곁들여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했고, 현장답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약도와 함께 찾아가는 법도 상세히 소개했다.

1천편의 시를 외운다는 시인 신경림씨의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전2권)》(우리교육)는 정지용부터 천상병까지 22명 시인의 출생지와 생전 활동현장을 찾아 그곳의 풍광을 역추적함으로써 명시가 나온 배경을 음미했다. 이 책의 특징은 현역 시인이 자신의 체험과 함께 글을 풀고 있어 그 밀도가 높다는 것. 대학시절 청계천 일대의 고서점에서 백 석 시인의 《사슴》을 구해 읽었다는 이야기, 김수영의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를 읽고 도덕적 순결성을 지향하는 소시민의 갈등과 고뇌의 청교도적 표백을 느꼈다는 고백이 시인의 발길이 옮겨질 때마다 하염없이 쏟아져나온다.

《시가 있는 길》(문효치, 문학아카데미)은 시와 유적지를 찾아 떠난 기록이다. 판소리의 고향 남원, 이효석의 봉평장, 미당 서정주가 성장한 인촌 고택과 줄포 거리, 김만중이 유배생활했던 남해의 ‘새끼섬’ 노도 등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어린 곳은 빠짐없이 찾았다. 이밖에도 《남도문학기행》(이대규, 이회문화사), 《한국문학기행》(장인에, 은하출판사) 등의 문학기행서가 서점에 나와 있다.

— 강성민 기자